



신성장동력 홈네트워크 특허기술, 해외진출 활발

- 특허청, 홈네트워크 기술분야 핵심특허 분석 -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기술 특허맵’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홈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시점이 2년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양적 성장 및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허건수 추이로 볼 때, 한국특허는 2000년 이후에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는 98년이후 급성장하여 연구개발시점이 선진국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홈네트워크 분야의 전체 미국특허의 약 17%(미국, 일본에 이어 3위, 337건), 유럽특허의 약 25%(1위, 120건)를 차지하는 등 해외 특허출원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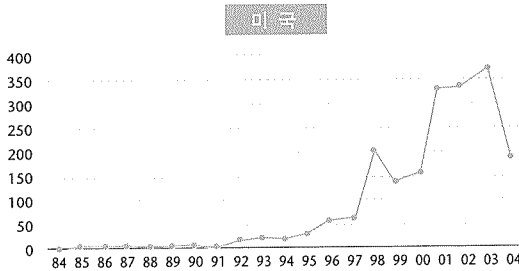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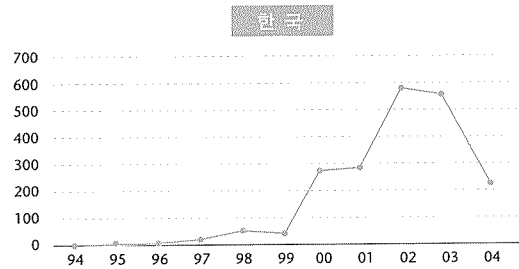
특허건수의 양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과 기술 집중분야가 유사하여 이들 선진국과의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술개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네트워크 기술을 크게 네트워킹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시스템기술, 응용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특허로 볼 때, 미국, 일본 등은 네트워킹기술에 15%, 소프트웨어기술 및 응용기술에 각각 20~25%, 시스템기술에 40%대의 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시스템기술이 전체 기술의 48%를 차지하여 타국에 비해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킹기술은 8%로 특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네트워킹기술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선진국의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금번 특허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 리딩 기업들의 특허현황과 핵심특허의 권리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이를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보급하여 리딩기업의 핵심특허들을 피해갈 수 있는 원천기술(회피기술) 연구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유럽 특허의 국적별 출원 건수(점유율 %)

	미국	일본	한국	독일	기타	총계
미국특허	870(44)	345(18)	337(17)	50(3)	348(18)	1,950
유럽특허	103(19)	113(21)	120(23)	79(15)	118(22)	533

*미국특허: 출원년도 1984~2004, 유럽특허: 출원년도 1991~2004

미국특허에서의 국가별 세부기술 점유율

출원인 국적	세부기술	특허건수	점유율(%)
미국	네트워킹	126	14.5
	소프트웨어기술	193	22.2
	시스템 기술	367	42.2
	응용기술	184	21.1
	소계	870	100
일본	네트워킹	50	14.5
	소프트웨어기술	87	25.2
	시스템 기술	137	39.7
	응용기술	71	20.5
	소계	345	100
한국	네트워킹	27	8
	소프트웨어기술	90	26.7
	시스템 기술	162	48
	응용기술	58	17.3
	소계	337	100
독일	네트워킹	10	20
	소프트웨어기술	13	26
	시스템 기술	20	40
	응용기술	7	14
	소계	50	100

(기준: 미국특허: 출원년도 1984~2004)